

곡성, 인구 유입 정책으로 '지역 활력'

835억 규모 청년정책...6개 분야 61개 사업 추진 생활인프라·일자리·귀농귀촌·6차산업 등 강화

곡성군이 2026년을 '청년과 STEP-UP, 행복 곡성'이라는 비전으로, 6개 분야 61개 사업에 총 835억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4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했으며, 지난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정책 방향과 세부사업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17개 신규사업이 반영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전년 대비 588억원이 증액됐다.

6개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Stay(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 분야에 곡성형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 전 군민 버스 무료화 등 90억원, Together(문화·청년주도

및 화합) 분야에 곡성형 미니레바 대학 운영, 옥과도서관 특화공간 운영 등 36억원, Equality(건강·보육) 분야에 출생기 본수당 지원,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시범사업 등 48억원이 투입된다.

또 Practice(일자리·창업) 분야에는 기업승계 청년 지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 10억원, U-turn(귀농귀촌·전입) 분야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등 561억원, Progress(농업·6차산업) 분야에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등 90억원이 반영됐다.

군 청년인구는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 125명이 증가하며 반등 조짐을 보였다. 군은 이번 2026년 청년정책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2026년은 군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이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전 군민 무료버스 정책으로 주민들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주거·문화·참여·복지 등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실질적 청년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순천 이전 의향이 있는 콘텐츠 기업 관계자가 원도심 애니·웹툰 클러스터 입주를 위해 현장 투어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

애니·웹툰 기업, 순천 원도심에 모였다

시, 콘텐츠기업 투자유치 설명회...50여개 기업 참여

순천시가 최근 원도심 애니·웹툰 클러스터에 위치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6 순천시 콘텐츠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순천으로 이전을 마친 콘텐츠기업과 서울, 경기, 제주 등 순천으로 이전 의향이 있는 타 지역 콘텐츠기업 등 총 50여개 기업,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36개 마중물 기업 유치에 이어 올해도 원도심 애니·웹툰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시점에서 20여 개의 이전 의향 기업이 참여하면서 순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대변했다.

올해 콘텐츠기업 지원정책 및 올해 본격 운영에 돌입한 2개의 문화콘텐츠 전략 펀드 운용방향 소개에 이어 참석 기업과 펀드 운용사 심사역과의 1대1 매칭 투자 상담, 원도심 클러스터 현장 투어도 함께 진행했다.

참여 기업들은 올해 전국 최대 수준으로 제작비 지원 확대, 이전기업들의 요구가 많았던 고용(인건비)·정주(주거비)

분야 지원 신설 등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순천시 콘텐츠기업 지원정책들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가장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 내 콘텐츠 인력 수급 해소를 위한 스튜디오 순천 웹툰·애니 스쿨 운영 등 인재양성 지원과 함께 B2C·B2B(산업전) 비즈니스 분야 지원 강화를 통해 이전기업들이 순천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 이전기업들이 성공해 순천을 넘어 대한민국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기업들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애니·웹툰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이어 '남해안권 콘텐츠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사업'에 300억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연속 확보한 만큼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완성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여수, 120t급 다목적 관공선 '전남 209호' 취항

해상 행정 강화...어업질서 확립·섬박람회 지원

여수시는 최근 여수 엑스포항 일원에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건조한 신규 다목적 관공선(어업지도선) 전남 209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

취항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한 전남도·여수시 의원, 남해어업관리단장 등 해양수산 기관, 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건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건조 관계자 감사패 수여와 취항기법 테이프 커칭식, 다목적 관공선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 209호는 길이 37.49m, 너비 6.5m

, 깊이 3.3m 규모로 친환경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갖춘 3047마력 디젤엔진 2기가 탑재됐다. 워터제트 추진방식을 적용해 평균속력은 25노트(시속 약 46km)에 이른다.

총사업비 103억원이 투입된 이 선박은 약 120t으로 최대 30명까지 승선할 수 있다. 최첨단 항해·통신장비와 8m급 고속 단정을 탑재해 기동성과 현장 대응 능력 역량을 강화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다목적 관공선 도입으로 어업 질서 확립



여수시는 최근 여수 엑스포항 일원에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건조한 신규 다목적 관공선 전남 209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여수시

과 안전조업 지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9월 개최되는 섬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해상 행정 수

요에도 적극 대응해 박람회 성공 개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보성, 농어민 공익수당 70만원 13일까지 접수...내달 지급

보성군은 2026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올해 공익수당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가구당 연 70만원으로,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3월 말까지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지급 제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수행하는 환경 보전, 식량 안보 유지, 농어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성격의 제도로,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추진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대상자 확정일까지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입원이나 장기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동일 세대원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지급 제의 대상은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족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이다.

공익수당은 현금이나 아닌 정책 발행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 발행 보성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다. 지난해에는 9774명에게 총 58억원 규모가 지급돼 농어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인상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고흥,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앞장

18개 의료기관과 통합돌봄 협약 체결

고흥군은 최근 팔영산출에서 지역 내 18개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돌봄사업 의료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의료와 행정이 공동으로 대상자를 발굴·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에서 치료부터 회복, 일상 복귀까지 책임지는 '고흥형 의료돌봄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방문 진료·복약 관리 등을 제공하고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문의료지원사업 추진, 병원 퇴원 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퇴원환자 연계 지원,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등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과

행정 간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해 질병의 악화과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의료와 돌봄이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역 중심 돌봄이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군민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고흥군은 최근 팔영산출에서 지역 내 18개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돌봄사업 의료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고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새봄맞이 할인 확대

내달 30일까지 카드·모바일 결제 2% 추가...최대 14% 혜택

장흥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30일까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2% 캐시백 추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카드·모바일 결제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12% 선할인에 더해 결제 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추가 적립해 최대 14%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류 상품

권은 부정 유통 방지 등을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12% 선할인만 적용된다.

개인별 월 구매한도는 지류를 포함해 70만원, 보유 한도는 2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캐시백 예산이 소진될 경우 추가 할인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금융기관 27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충전하거나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충전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새봄맞이 캐시백 추가 할인 이벤트가 집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구례군 삼진강변 대표 생태관광지인 삼진강수달생태공원에 입식된 수달. 사진제공=구례군

구례 삼진강수달생태공원, 봄 관광 본격화

홍매화 개화·수달 3마리 추가 입식

구례군은 삼진강변 대표 생태관광지인 삼진강수달생태공원의 홍매화가 개화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이 열렸다.

홍매화는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절정을 이루며, 삼진강을 배경으로 공원 산책로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한다. 이 시기에는 사진 촬영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집중 방문하며, 구례의 대표적인 초봄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3월 홍매화 개화 시기 공원 방문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에는 1만2300여명, 지난해는 1만3300여명이 찾으며 전년 대비 1000명이 늘었다.

올해는 홍매화 개화에 맞춰 '삼진강수달생태공원 스텝 투어'를 운영한다. 방

문객은 공원 내 주요 지점과 생태 체험 공간을 순회하며 스텝폼을 모으고, 완주 참여자에게는 수달 스티커를 제공한다.

공원은 계절꽃 식재를 통해 사계절 볼거리를 강화하고 있다.

봄에는 수선화와 튜リップ, 알리움, 유채가 순차적으로 개화하며, 초여름에는 칸나와 디지털리스 등이 다채로운 경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구례=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